

# 영미권 독자를 위한 『덴동어미화전가』 번역과 해설의 문제

인하대 한국학과 박사 7 차 박병주

1. 서론
2.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인생사
3. 화전 놀이의 다른 참석자들
4. 번역의 문제
5. 결론

## 1. 서론

본고는 본 대회가 국제적이라는 특성에 기대어 우리 고전 문학사에 묻혀있는 독특한 여성인물화자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그녀가 등장하는 『덴동어미화전가』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 중에 생기는 번역상의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덴동어미는 우리 고전 문학에서 흔치 않은 ‘서민 여성 화자’로 고생스러운 삶 중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인물이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시 조선의 사회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여성 화자가 가진 불굴의 생명력이 오늘날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과 연결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덴동어미라는 개성 있는 서민 여성화자를 소개하는 것과 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 중에 생기는 난제들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화전가의 일종이지만, 덴동어미라는 특정 여성 인물의 파란 만장한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다른 화전가들과는 느낌을 달리한다. 덴동어미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조선시대, 중인 계급의 딸로 태어나, 열여섯에 처음 시집을 갔지만, 첫 번째 남편은 신혼 정이 들기도 전에 사고로 죽고, 두 번째 남편은 시집간 집안이 풍비박산 되어 유리걸식 하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바라던 돈을 모아 귀향하기 직전 ‘병술년 괴질’로 죽는다. 세 번째 남편 황도령은 함께 도부장사를 하며 10 여 년을 고생했지만, 갑작스런 해일에 목숨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오십의 나이에 옛장사 조침지와 만나 아들을 낳고 이제 안정을 갖게 되나 보다 할 때 이번엔 집안에 불이 나서 남편을 잃고, 아이는 화상을 당한다. 그녀의 호칭이 덴동어미인 것은 옛날 사람들이 화상 입은 아이를 덴동이(불에 데인 아이라는 의미)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아이의 어머니기 때문이다.

『덴동어미화전가』에서 덴동어미의 일생 부분은 줄거리가 있고 그 이야기가 어렵지 않은 서민들의 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글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번역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덴동어미와 함께 화전놀이를 떠나는 동네 여인들의 여러 가지 옷차림을

설명하는 부분과 그 일행 중 젊은 과부가 일행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 이름으로 ‘봄 춘(春)자’ 노래를 부르는 부분과 소년자가 ‘꽃 화(花)자’ 노래를 하는 부분이다. 한복의 여러 가지 부분명칭과 옷감에 대한 언급을 외국인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봄 춘(春)자’ 노래와 ‘꽃 화(花)자’ 노래는 한자와 한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들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부분들이 덴동어미가 속한 공동체<sup>1</sup>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덴동어미는 불행이 있을 때 마다 주변 여성들의 도움과 위로를 많이 받아왔다. 그리고 이 화전가에서 덴동어미가 자신의 불행한 인생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화전 놀이 일행인 젊은 과부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덴동어미화전가』에서 그녀의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 또한 크고, 또 이 부분을 온전히 번역해야만 이 화전가의 온전한 형식을 갖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대회에 취지에 맞게 설명해 본다면 과거에 묻혀있는 개성 있는 인물과 그녀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 2. 덴동어미의 비극적 인생사

『덴동어미화전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전가의 일종이다, 화전가란 경상도 지방에서 봄날 동네 부녀자들이 모여 꽃구경을 하러 가면서 그날의 흥취를 노래한 기록물이다. 보통은 그 내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특정 개인의 인생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덴동어미화전가』는 다른 기타의 화전가들과 차별성을 띠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덴동어미라는 한 개인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사를 노래하는 것이다.

덴동어미의 비극적인 인생사는 그녀가 결혼 하면서 시작된다. 원래 순흥 지방 아전, 즉 중인계급 딸로 태어나 부모님께 사랑 받고 자란(어리장 고리장) 덴동어미는 같은 중인계급출신의 집안과 결혼한다. 열여섯에 결혼한 덴동어미의 시댁은 꽤 좋은 집안이었다. 집 자체도 예천읍내에서도 큰 집에 속한 것으로 봐서 집안도 부유하고 구고님(시부모님)도 새로 시집온 새댁에게 잘해주었으며, 신랑도 꽤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잠시였고, 단오날(음력 5 월 5 일) 친정으로 다녀갔다가 사고가 나고 만다.

We went to my home for the Spring Festival.	1
My husband was swinging on a high branch	2

---

<sup>1</sup> 덴동어미가 속한 공동체를 박혜숙 교수는 ‘여성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 여성연대가 『덴동어미화전가』의 독특한 미학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14 호, 2005, p.126. )

when he dropped to the ground and was smashed to death. 3  
 How come this kind of misfortune occurred? 4  
 We were newlyweds and new at love. 5  
 But I became a widow at the age of seventeen.  
 I was so sad I cried day and night. 6  
 Now I have no husband.<sup>2</sup>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 마침 단오러라 1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서 2  
 춘천줄이 떨어지며 공중지기 메박으니 3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4  
 신정이 미흡한데 십칠세에 과부 됐네 5  
 호천통곡 슬피운들 죽은 낭군 살아올까<sup>3</sup> 6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로 여자들은 청포물에 머리 감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달아 뛰었다. 그런데 덴동어미의 남편이 삼백장(1장은 10척(尺) 길이를 말하는데, 3.58m: 삼백장이란 굉장히 높다는 의미)되는 높이의 가지에 그네를 걸고 타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만다.

이렇듯 허무하게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진 덴동어미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Thus, I became Lee Sang-chal's daughter-in-law 1  
 and Lee Seung-bal's second wife.  
 I went to live in a nice house and my parents' in-law 2  
 were very kind to me.  
 My new husband was handsome and gentle. 3  
 But they often worried about their unpaid taxes. 4  
 Three years later, Mr. Cho became my husband's boss. 5  
 He was a notorious district magistrate.  
 Soon he began to collect unpaid taxes very strictly 6  
 and we were in trouble.

<sup>2</sup> 본고에서 인용되는 『덴동어미화전가』의 영역(英譯)부분은 인하대 문화콘텐츠학부에 재직중인 Shepherd Iverson 교수와 필자와의 공역임을 밝힌다.

<sup>3</sup> 『덴동어미화전가』의 원문은 한글이긴 하지만 고어체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것은 임형택, 고미숙 교수의 『한국고전시가선』(창작과 비평사, 1997)에 나오는 「덴동어미화전가」편과 박혜숙 교수가 현대어로 번역한 『덴동어미화전가』(돌베개, 2011)이다.

이상찰의 며느리 되어 이승발 후취로 들어가니	1
가서도 웅장하고 시부모님도 자룩하고	2
냥군도 출중하고 인심도 거룩한데	3
매양 앓아 하는 말이 포가 많아 걱정하더니	4
해로 삼년이 못다 가서 성 쌓던 조등내 도임하고	5
엄한 중에 수금하고 수만 냥 이포를 추어내니	6

상찰·승발은 모두 이방과 비슷한 직책으로, 덴동어미는 비슷한 집안과 다시 결혼했고, 후취(두번째 부인, 첫번째 부인이 죽거나 없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로 들어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역시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결혼한 집안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집안이었다. 시부모도 좋은 분들이었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 앉으면 걱정하는 것이 “포”가 많다는 것이었다.

“포”란 아전계급들이 백성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관아에 반납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아전계급들은 따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받은 포를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상황이었다(물론 이것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원님(등내란 백성이 자기 고을 원님을 지칭하는 말이다)이 그 포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값을 것을 명한 것이다. 덴동어미 집안의 포는 수 만 냥에 달했기 때문에 이들은 갑자기 수 만 냥을 갚느라고 집에 있는 그릇까지 다 팔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친척들에게 까지 돈을 거두어 그 빚을 다 갚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 이들 부부는 유리걸식하며 경주까지 오게 된다.

이곳에서 이들 부부는 여관에서 일을 하여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덴동어미가 여관에서 부엌어미(여자 일꾼)와 중노미(남자 일꾼)로 일을 하자고 남편을 설득하는 장면에서는 덴동어미가 얼마나 진지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느낄 수 있게 된다.

I will work in the kitchen and you will work outside.	1
If we work here for five years, we can make plenty.	2
Then we will have enough money to return home.	3
And even though we will not be rich, no one will look down on us.	4
Let's accept this offer and be diligent.”	5

나는 부엌어미 되고 서방님은 중노미 되어	1
다섯 해 작정만 하고 보면 한 만금을 못 버릿가	2

만 냥 돈만 벌었으면 그런대로 고향 가서	3
이전만치는 못 살아도 남에게 천대는 안받으리	4
서방님은 허락하고 지성으로 버사이다	

어디서라도 일해서 돈 만 냥<sup>4</sup>만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사고방식이 지금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에 평범하지 않은 것은, 남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관주인이 그들보다 낮은 계급(군노<sup>5</sup>)으로, 자기들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빌어먹겠다고 하는 남편의 반응이 어찌면 그 당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라리 빌어먹자던 남편은 진지하게 설명하는 부인에게 설득 당하고, 부인의 권유대로 열심히 일한다. 이들 부부는 여관에서 일하는 한편, 여관에서 미리 받은 돈으로 시장에 이자를 놓아 돈을 모은다(고을 아전들이 주로 돈을 모으던 방식이다). 다음 부분은 이들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부인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던 남편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분 좋은 리듬으로 나와있다.

My husband worked in the family compound and swept the yard and fed the horse and cows.	1
Inside the house he helped set the dinner table.	2
He wasn't used to this kind of work but he managed.	3
Three years passed and we saved more than enough.	4
We didn't need to wait five years because we worked hard and collected interest from shoppers.	5
Now we thought we could return to our home.	6

마죽 쓰기 소죽 쓰기 마당 쓸기 봉당 쓸기	1
상 들이기 상 내기 오며가며 거드친다	2
평생에도 아니 하던 일 눈치 보아 잘도 하네	3
삼년을 나고 보니 만여 금 도 되었고고나	4
우리 내외 마음 좋아 다섯 해까지 갈 것 없이	5

---

<sup>4</sup> 상평통보 1 개는 1 문(文), 10 문은 1 전(錢), 10 전은 1 냥(兩)이다. 날품팔이의 경우 조건에 따라 하루 품삯이 1 전 ~ 2 전 정도였다면 일 년치로 환산했을 때 3 백 ~ 6 백 전 즉 30 냥 ~ 60 냥 정도가 된다. (출처: 정인숙,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발달 양상 및 도시생활문화의 탐색」, 『국어교육』127 호, 2008, p.374.)

<sup>5</sup> 군노란 조선시대 지방관청에 딸려있던 사령으로 지방관청의 군관·포교 밑에서 죄인을 잡아오는 일, 곤장을 때리는 일, 죄인에게 칼을 씻우는 일, 관청의 문을 지키는 일, 또는 수령의 둔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출처: 정인숙,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발달 양상 및 도시생활문화의 탐색」, 『국어교육』127 호, 2008, p.374.)

둘이 합심하여 열심히 돈을 모은 부부는 처음에 5년을 계획했지만, 3년 만에 돈을 모아, 이제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비록 하는 일은 여관 손님들이 끌고 오는 소나 말이 먹을 죽을 만들고, 마당 쓸고, 부엌 일 하는 하층계급의 일들이었지만, 이 장면이 덴동어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인 것 같다. 일은 힘들었지만, 뭔가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지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잠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에 남편이 죽고 만다.

마을에 발생한 괴질에 마을사람 대부분이 죽고 그녀의 남편도 역시 죽고 만다. 덴동어미는 괴질에서 무사했지만, 남편을 잃고, 또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으로써, 남편이 시장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녀는 더욱 하층민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슬퍼한 것은 다른 것이다.

Oh dear, you are really miserable.	1
we would not have taken a humble job like this.	
I just wanted to live with you happily	3
when I planned to work as a servant for five years.	
Why did I insist, when you cried and said no?	4
You took the Army worker's insults,	5
as though they were sweet as honey.	
And you dared do anything, whatever it was.	6
You tried to do as we had decided.	7

애고애고 서방님아 살뜰히도 불쌍하다	1
이럴 줄을 짐작하면 천집사를 아니하지	2
오년 작정 하올 적에 잘살자고 한 일이지	3
울면서도 마달 적에 무슨 대수로 세웠던고	4
군노놈의 무지욕설 꿀과 같이 달게 듣고	5
수화증을 가리잡고 일호라도 안 여기네	6

그녀가 슬픈 것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싫다는 남편을 자신이 억지로 하자고 우겨서 이 일을 시작했고, 게다가 처음엔 싫다고 했던 남편이지만, 결국 주인의 말을 한 마디도 여기지 않고('수화증을 가리잡고 일호라도 안 여기네'), 욕설도 참아가면서 삼 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Did god envy us, or was it some devilish ghost?	1
---	---

Had we done something wrong before we were born?	2
I don't want gold or money, please honey wake up!	3
I cried and cried but my man did not wake up again.	4
I could not help him, only burying him.	5
I tried to die also, but it was too difficult.	6
So now I must live.	7

조물이 시기하여 귀신도 야속하다	1
전생에 무슨 죄로 이생에 이러한가	2
금도 돈도 내사 싫네 서방님만 일어나게	3
아무리 호천통곡한들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4
아무래도 할 수 없이 그러저러 장사하고	5
죽으라고 애를 써도 생한 목숨 못 죽을네	6
역지로 못 죽고서 또다시 빌어먹네	

덴동어미의 두 번째 남편은 3년 동안의 악착같이 일한 결과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희망찬 순간에 허무하게 죽음으로써 삼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덴동어미는 가난하고 남편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만다.

덴동어미의 사람됨은 원래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행을 경험한 것이다. 남편을 잃고 떠돌던 중 만난 황 도령은 덴동어미 만큼이나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인물이다. 그는 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전 재산을 잃고, 제주도까지 표류했다가 살아왔다. 삶의 불가항력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있음을 이해하는 둘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그릇을 팔았으며, 밥은 한 그릇을 얻어 둘이 나누어 먹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다. 10여년 그릇장사를 한 결과 그들의 목은 자라목이 되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듯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생도 마다 않던 남편 황 도령은 갑작스런 해일에 쓸려갔고, 그 다음에 만난 옛 장사 조침지는 밤새도록 옛을 고다가 집에 불이 붙는 사고로 죽게 된다.

### 3. 화전놀이의 참석자들

세 번째 남편 황 도령이 해일에 휩쓸려 죽었을 때, 슬픔에 빠져 있던 덴동어미를 위로한 것은 그녀가 묶고 있던 숙소의 안주인(여자주인)이다. 그 안주인은 덴동어미에게 당신은 지금 눈보라를 만난 것과 같은 형편이니(“자네 신세 생각하면 설한풍을 만남이라”) 이

눈보라가 지나 가면 다시 봄바람이 불고 부귀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 올 것이라고(“다시 춘풍 들이 불면 부귀춘화 우후홍을”) 위로하면서, 다시 한 번 팔자를 고칠 것(결혼할 것)을 권한다. 그 여주인은 적극적으로 덴동어미에게 옛장사 조침지를 소개하며 다시 잘 살아볼 것을 권한다.

덴동어미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녀는 주변에 항상 그녀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인다. 네 번째 남편 조침지가 화재로 죽었을 때, 그녀는 진정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 그녀에게 다시 일어날 동기를 일깨워 준 이는 바로 이웃집 여자였다.

Tired of my life, I lied down to die at a neighbor's.	1
She came into the room holding Dendong	2
and demanded I breastfeed him.	
From an angry heart, she said, "Feed your baby!	3
I can't stand his crying, please sit up in bed	4
and feed your baby!	
It's hard for me to see your baby struggle to live.	5
I cannot bear his crying either.	6
I'd rather die to forget him."	

세상사가 귀찮음에 이웃집에 가 누웠으니	1
덴동이를 안고 와서 가슴을 헤치고 젖 물리며	2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아이 젖 먹이게	3
우는 거동 못 보겠네 일어나서 젖 먹이게	4
나도 아주 죽을라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5
그 거동을 어찌 보나 아주 죽어 모를라네	6

사실 조침지 집에 불이 나기 전까지, 그녀는 조침지와 사이에서 아기도 태어나고 옛장사도 잘 되어서, 이제 나에게도 행복이 오려나 보다(“흥진비래 적은 나도 고진감래 할라는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옛을 만들기 위해 지퍼놓은 불이 집으로 옮겨 붙어 집은 다 타버리고, 집 안에 있는 아기를 찾던 조침지는 불에 타 죽고 만다. 아이는 살았지만 불에 데인 상처가 깊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사가 귀찮다”는 말은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이웃집 여인은 아기를 데려와 “지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아이 젖 먹이라”는 것이었다. 아기가 불에 데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 오히려 자기가 죽고 싶은 심정이니(“나도 아주 죽을라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그 거동을 어찌 보나 아주 죽어 모를라네”), 어미인 당신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는 것이다. 이웃집 여인은 이어서 덴동어미가 꼭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My neighbor said, "Even though your son was burned, 1  
 he is not dead.  
 Only his mother can let him live. 2  
 If you die, he will die too. Otherwise, he can live. 3  
 You must not choose to die. It is not a proper thing to do. 4  
 To honor the life of Cho Cheumji, 5  
 you have to sit up and live for your baby.  
 If your baby lives, we can say that Cho Cheumji didn't die." 6

덴다 한들 다 죽는가 불에 덴 이 허다하지 1  
 그 어미라야 살려내지 다른 이는 못 살리네 2  
 자네 한번 죽어지면 살 거라도 아니 죽나 3  
 살아날 것이 죽고 보면 그도 또한 할 일인가 4  
 조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아 살리게 5  
 어린 것만 살고 보면 조침지는 사뭇 안 죽었네 6

이 어린 것은 어미라야 살려낼 수 있지 다른 이는 못 살리니, 덴동어미 당신이 죽으면 살 수 있는 아이도 죽지 않겠는가, 살 수 있는 목숨이 죽는 것 또한 할 일이 아니고, 조침지를 생각해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하니, 아이가 산다면 조침지는 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웃 여인의 말을 듣고 덴동어미는 그제서야 일어나 아이를 보살피기 시작한다. 이렇듯 이웃여인들의 위로와 보살핌을 받아서 아이를 살린 덴동어미는 육십이런 나이에 아들 덴동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와 옛장사를 하며 덴동 이와 삶을 이어가던 덴동어미는 어느 봄날 화전놀이에 참석해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덴동어미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말하게 된 동기를 보면, 앞서 말했던 여인들처럼, 자신도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전놀이에 참석한 여인들 중에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시집을 다시 가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덴동어미가 한번이면 죽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기구한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화전가의 시작부분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덴동어미 개인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 화전가 속에 나오는 한 부분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소개는 덴동어미라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일생, 그러나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녀의 일생을 먼저 집중적으로 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래의 화전가 큰 틀에서 화전가의 전체 참석자들을 살펴본다면 어떨까.

Let's go see the flower blossoms before they fade.	1
April's fragrant new blooms.	2
The spring sun baths us in warmth	3
and the whispering wind announces the season.	
The painter has arrived and brushes life	4
into varied shapes with vivid colors.	
Let's not miss this chance to see the flower blossoms.	5
We spend too much time indoors. We need a picnic.	6
Though we are women, we can fully enjoy ourselves.	7

가세 가세 화전을 가세 꽃 지기 전에 화전 가세	1
이때가 어느 땐가 때마침 삼월이라	2
동군이 포덕택하니 춘화일난 때가 맞고	3
화신풀이 화공되어 만화방창 단청되네	4
이런 때를 잃지 말고 화전놀이 하여보세	5
불출문외하다가 소풍도 하려니와	6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있게 놀아보세	7

이것이 『덴동어미화전가』의 시작부분이다. 화창한 봄이 되었으니 집밖으로 잘 나가지 않던(불출문외) 우리 여자들도 소풍도하고 흥과 취미를 살려(흥취있게) 놀아보자는 것이다. 화전가라는 것은 경상도 지방의 부녀자들이 꽃피는 봄날 들판으로 나가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와 개나리 같은 꽃잎을 따서 전을 만들어, 엿이나 떡과 함께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풍습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에서도 그런 풍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시작 부분에는 화전놀이를 가기 전에 분주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화전을 만들려면 필요한 쌀가루, 기름 등등의 준비물을 챙기는 모습, 일년에 한 번 화전 놀이 가는 여인네들의 치장한 모습, 혹은 수수한 차림으로 가는 모습 등을 그린 부분이 있다. 여러 명의 여인네들 중에, 열일곱 청춘 과부가 이날 따라 기분이 우울하다. 한 마을에 살면서 매우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그녀가 왜 우울한지 대충 짐작하지만 “좋은 풍경 좋은 놀이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눈물 한숨 웬일이오?”라고 묻고 이 청춘과부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 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그녀는 시집을 다시 가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삼종지도’를 따랐다. 이것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 사후에는 아들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

는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한 일이지만, 당시 여성들에게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보호막이 없는 여성들은 그만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았다. 이러한 이유로 17세에 혼자가 된 청춘과부는 혼자 사는 외로움 말고도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도 다시 결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갑자기 앞장서서 대꾸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덴동어미였다. 덴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왜 더 이상 시집을 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불행한 인생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덴동어미가 이야기를 끝 냈을 때, 청춘과부는,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옹네” 라고 말하면서 긴 노래를 시작한다. 노래 내용 중에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혹은 당시 유명한 이야기 주인공들이 여러 명 나온다. 그녀가 얼마나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청춘과부의 노래 중의 백미는 청춘과부가 거기 참석한 여인들의 택호<sup>6</sup>를 한 명씩 부르면서 ‘봄 춘자’ 글자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산하산중 홍자춘 흥정골택네 봄 춘자  
一春明月 몽화춘 골내택네 봄 춘자

첫 행에 나온 흥정골택네라는 이름에서 흥(紅)은 한자로 붉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산하산중 홍자춘”이란 말은 온 산이 붉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행에 나오는 골내택에서 ‘골’이란 단어는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패어 들어 간 곳’을 말하는데, 주로 이런 곳에 냇물이 있고, 시냇물 소리가 난다. 봄날 밤에 밝은 달이 그 계곡물이 비치는 모습이다. 청춘과부의 ‘봄 춘자’ 노래는, 박혜숙 교수의 지적대로, “즉석에서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노래와 신명(즐거움) 속으로 끌어들이는”<sup>7</sup> 역할을 한다. 이 장면은 ‘화전놀이’를 해보지 않은 우리에게 잘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지만, 꽃이 활짝 핀 봄날 들판에서, 화전놀이 하는 여인네들이 있고, 청춘과부는 그 여인들 한 명 한 명씩 택호를 부르면서 즉석으로 노래 만들고 청중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흥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청춘과부의 봄춘자 노래가 끝나자 이번엔 ‘의복단장 제대로 한’ ‘소(少)낭자가’ 꽃 화(花)자 타령을 부른다.

---

<sup>6</sup> 택호란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호칭으로 시집오기 전에 살던 친정 동네의 지명을 붙여서 ‘아무개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부산에서 살았다면 부산택이라고 부른다.

<sup>7</sup> 박혜숙 편역,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p. 141.

어여뵈사 소(少)남자가 의복단장 올케하고  
방긋 웃고 썩 나서며 “좋다 좋다 시구 좋다.  
잘도 하네 잘도 하네 봄 춘자 노래 잘도 하네  
봄 춘자 노래 다했는가 꽃 화자 타령 내가 함세”

2행에 나오는 ‘시구(얼씨구) 좋다’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청춘 과부의 노래로 참석자들이 꽤 즐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춘과부의 노래로 기분이 한껏 좋아진 소(少)남자는 이제 자기가 ‘꽃 화자’ 타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이 ‘꽃 화자’ 노래에는 부모님에서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양한 꽃으로 비유되고 있다.

당상천년 장생화는 우리 부모님 꽃화자요  
슬하만세 무궁화는 우리 자손 꽃 화자요  
....  
욕망난망 상사화는 우리 낭군 꽃 화자요  
천리타향 일수화는 유배객의 꽃 화자요  
...

이 노래의 형식은 먼저 어떤 꽃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대상을 연결시키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그런 다음 화전 만들 때 쓰는 진달래꽃(참꽃)에 대한 찬사와 그 화전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들어 주자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허다 많은 꽃 화자가 좋고 좋은 꽃 화자가  
화전하는 꽃 화자는 참꽃<sup>8</sup> 화자 제일이라  
다른 꽃 화자 그만두고 참꽃 화자 화전하세  
쌍져협내 향만구하니 일연꽃화자 복중전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으니 봄꽃 향기 배 속에 가득)  
향기로운 꽃 화자 전을 우리만 먹어 되겠는가.  
꽃 화자 전을 많이 부쳐 꽃 화자 전을 많이 부쳐  
꽃가지 꺾어 많이 싸다가 장생화 같은 우리부모  
꽃화자로 봉친하세.

‘꽃 화자’ 노래는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화전놀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앞서

---

<sup>8</sup> 참꽃 : 먹을 수 없는 꽃인 ‘철쭉’에 대하여,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뜻으로, ‘진달래꽃을 달리 이르는 말

도입부에서 “흥채 있게(흥과 취미를 살려) 놀아보자”던 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즐기는 과정 중에서 덴동어미의 존재도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덴동어미는 원래 도입부에서 옛장사 덴동어미로 간단하게 묘사되지만 (“건넌집의 덴동어미 / 옛 한 고리 이고 가서/ 가지 가지 가고 말고 낸들 어찌 안 가리 까”),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청춘 과부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여인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줄 뿐 아니라 덴동어미 특유의 곳곳한 인생에서 나오는 충고까지도 귀담아 듣게 되는 존재감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 4. 번역의 문제

앞 장에서 보았듯이, 『덴동어미화전가』에는 덴동어미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덴동어미와 함께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인들이 함께 존재하며, 이들의 존재는 덴동어미가 속한 공동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제 『덴동어미화전가』를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덴동어미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 그녀의 언어가 서민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영어로 옮기는 것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그녀의 이야기를 영어로 옮겨도 그녀의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장면 중에서, 기다란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는 화전가를 시작하는 부분에 일행들이 치장한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복의 여러 부분 명칭이라든가, 옷감의 종류, 중국에서 수입된 비싼 비단, 아니면 값싼 옷감 등등의, 현대의 한국인들조차도 잘 그림이 떠올려지지 않는 그런 상세한 묘사들이 나오는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청춘과부의 노래 중에 거기에 참석한 부인네들의 택호를 하나씩 하나씩 부르며 그들의 이름이 떠올리는 장면들을 노래로 표현한 부분이다. 이 것은 한글과 한자의 의미를 동시에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것을 『덴동어미화전가』의 리듬에 맞춰 짧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해석을 붙이자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생긴다.

산하산중 홍자춘 흥정골택네 봄 춘자  
 一春明月 몽화춘 골내택네 봄 춘자

예를 들어 위의 구절을 직역하자면,

All mountains wear vivid colors of spring, (it is like) the wife from Hongjeonggol's spring

(‘Hong’- 홍, 紅- means red in Chinese letter)

The spring is when the moon is reflected on the water of stream, (it is like) the wife from Golnae’s spring

(‘Gol’ means small valley in the mountain, and there are usually small streams in the valleys)

위와 같은 형식으로 22명의 이름이 나오고 한 인물당 2줄로 설명이 되어있으니 44 줄의 번역이 위와 같은 형식 혹은 각주를 참고 해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셈이다.

소년자의 ‘꽃 화자’ 노래 역시 중국의 인명과 당시 유명했던 이야기의 인물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들을 다 설명하면서 번역을 할 것이냐, 설명 이를 다 설명하면서 번역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당산천년 장생화는 우리 부모님 꽃 화자요

슬하만세 무궁화는 우리 자손 꽃 화자요

요지연의 벽도화는 서왕모의 꽃 화자요

천년일개 천수화는 광한전의 꽃 화자요

극락전의 선비화는 석가여래 꽃 화자요

천태산의 할미화는 마고선녀 꽃 화자요

춘당대의 선리화는 우리 임금 꽃 화자요

The flower of thousand –year-long life is our parents’ flower

The eternal flowers\*(무궁화) under parents’ care is the descendants’ flower

The immortals’ flower in Yojiyeon\* is the west queen mother’s flower

Chunsuhwa(천수화, udumbara) which blooms Once a thousand years is a flower of the palace in the moon

Sunbihwa(선비화)\* in Guklakgeon is the flower of Buddha

Halmihwa(할미화) in Chuntaesan (천태산) is Magosunyeo(마고선녀)’s\* flower

Sunrihwa(선리화)\* in Chundangdae(춘당대)\* is our king’s flower

\*The eternal flowers is the rose of Sharon, or Mugunghwa in Korean

\*Yojiyeon is the place where a famous king in China met the west queen mother, the legendary immortal figure

\* Sunbihwa(선비화), this flower is in front of Bongjung-temple in Korea, which was built by a famous monk, Eou-Sang, has legendary story.

\*Magosunyeo(마고선녀) is a legendary heavenly female figure.

\*Sunrihwa(선리화) is a flower of plum tree.

\*Chundangdae(춘당대) is a tower in a Changgyoung Palace.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번역을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결코 그렇더라도 번역을 해야 할 것인가? 『덴동어미화전가』번역서의 독자들이 고전문학 전공자가 아닌 한국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로 상정했을 때, 이 부분을 전부 번역한다는 것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이 작품에 대한 흥미를 없애버리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이 부분이 앞서 지적한 대로, 물론 덴동어미의 이야기만으로도 독자들은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지만, '봄 춘자' 노래와 '꽃 화자' 노래가 덴동어미가 속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할 때, 독자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 결론

지금까지 현대의 독자들이나 해외의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덴동어미화전가』의 주인공인 덴동어미의 극적인 삶을 소개하고 이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작품을 현대의 영어로 옮기는 것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째는 한글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 생기는 발음상의 부정확함과 그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알파벳으로 표기한 단어에 대한, 현재의 독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개념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실굽다리, 다리쇠, 빗집고리 등과 같은 단어들이 연속해서 나올 경우, 알파벳 표기는 Silgupdari, Darisoe, Bitjupgori와 같이 될 것이다. 특히 다리쇠(Darisoe)와 같이 이중모음이 있는 단어들은 알파벳으로 표기할 경우 발음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설명 또한 계속 길어질 경우, 이 글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셋 째, 앞서 본 청춘과부의 '봄 춘자' 노래나 소낭자의 '꽃 화자' 노래처럼, 번역할 경우 외국인들에게 원문의 뜻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장이 몇 문장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역이든지 직역과 설명을 동시에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지만, 이런 문장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역과 해설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단순 번역, 혹은 의역과 해설로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한국 고전문학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 덴동어미의 이야기로 받았던 감동조차도 식어버리게 될 것이다.

본고는 『덴동어미화전가』영역본의 독자를 한국학을 입문하는 사람들 혹은 한국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상정하고 번역을 진행시켜왔다. 이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안책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한글 이름의 경우 알파벳 옆에 괄호로 묶어 한글을 써주는 방법, 예를 들면, "Darisoe(다리쇠)"와 같이 표기하고, 필요한 설명은 각주를 달고, 번역만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그림이나 사진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는 이 부분들을 전부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그림과

간단한 설명으로 대체 할 것이냐 이다. 외국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문화를 너무 자세히 소개해 주려다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도 있지만, 반면 이런 19세기의 조선 생활사를 하나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덴동어미화전가』의 영역(英譯) 과정 중에 생긴 문제들은, 다른 고전 작품들을 번역할 때도 만날 수 있는, 고전 작품 번역상의 전형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전 문학 영역(英譯)의 방법론적인 문제, 혹은 효과적인 전달 문제는 한국학의 깊이와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가는 '덴동어미'와 같은 훌륭한 소재조차도 지겹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번역으로만 간다면, 더 이상 깊게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의 주제처럼 과거의 것을 어떻게 현대의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냐가 될 것이다.

#### 참고 도서

『小白山大觀錄』, 복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원본소장기관: 慶北大學校圖書館)

박혜숙 편역,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임형택 외 지음, 『한국고전시가선』, 창작과 비평사, 1997.

#### <연구논문>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14호, 2005, pp. 123-145.

정인숙,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발달 양상 및 도시생활문화의 탐색」, 『국어교육』127호, 2008, pp.365-392.